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지를 초월하여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12-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며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출6:7)"는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을 종종 비교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사울은 불순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가 아직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의 삶도 전쟁에 나가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당시에는 사울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과는 달리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울의 처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

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9:2).” 사울이 ‘준수하다’는 의미는 외모가 잘 생겼다는 것에 더해 사람 자체가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그의 집은 기브아에 있었습니다(10:26). 우리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기브아에는 불량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던 사울은 그 땅의 불량배들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으로 준수한 인물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울의 준수한 인품을 볼 수 있는 대목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지만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였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왕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내었을 때 일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한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고 하자 사울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11:13).”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밭에 나가 소를 몰기도 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11:5).

그 뿐 아니라, 사울이 맨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도 사울의 준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9:20)”라고 사울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보배’ 또는 ‘이스라엘의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9:21).”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무엘이 사울

을 향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의 예전 상황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장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준수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 그가 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겪고 전쟁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사사기의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을 때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인데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끔찍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 신이 되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인데 사울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인간 죄악의 교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20:3)"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더 나아가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 죄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20:4)"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은 그 분이 만드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신이 되려는 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의 모습을 보며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겸손하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교만하게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그 분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